

냉이·미나리 등 제철 식재료 가득... 식탁에 '봄이 왔나봄'

외식업계 '리프레시 푸드'

외식업계가 따뜻해진 봄 날씨에 입맛을 돋궈줄 '리프레시 푸드'를 선보인다. 제철·특산 식자재를 활용하거나 조리법에 변화를 줘 입맛을 한층 산뜻하게 깨워주는 것이다. 특히 제철 봄나물 메뉴가 주목받고 있다. 신선한 봄나물은 맛뿐만 아니라 풍부한 비타민과 영양소를 갖추고 있어 소비자의 관심이 높다.

◆미나리·냉이로 맛·건강 다 잡아

먼저, 아워홈의 푸드앰파이어는 냉이, 부추, 참나물, 돌나물, 죽순, 미나리와 같은 봄나물을 활용한 신메뉴를 출시했다. '봄나물 우삼겹 된장찌개' '봄나물 연두부 비빔밥' '봄 담은 유산슬 덮밥' '봄 미나리 불오징어 반상' 등 총 4종이다.

봄나물 우삼겹 된장찌개는 육수 베이스에 백합, 우삼겹을 함께 넣고 얼큰하게 끓인 뒤 냉이와 부추를 듬뿍 넣었으며, 봄나물 연두부 비빔밥은 밥 위에 참나물, 돌나물, 부추를 올리고 연두부, 궁채(상추대)절임, 적양파, 간장 소스를 곁들였다. 봄 미나리 불오징어 반상은 매콤한 오징어볶음과 싱그러운 미나리를 함께 즐기는 메뉴다.

프리미엄 분식 프랜차이즈 스쿨푸드도 '미나리제육덮밥'을 출시했다. 매콤한 제육볶음에 다량의 비타민을 함유한



죽장연 빼개장면

/오투기



미나리제육덮밥

/스쿨푸드

아워홈 '푸드앰파이어' 냉이 등 활용 '봄나물 우삼겹 된장찌개' 등 4종
스쿨푸드 '미나리제육덮밥' 출시

오투기 '죽장연 빼개장면' 선보여
국산 냉이 사용 향긋함 더해
크리스탈제이드 '탐라성찬' 콘셉트
제주 톳 사용 '바지락탕면' 등 3종

향긋한 미나리가 더해져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한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으며 특히, 풍성한 양파와 당근 등 야채와 함께 반숙으로 올려진 계란 노른자를 더 뜨려 비벼 먹으면 입 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맛도 추가로 느낄 수 있다.

입맛을 끌어올리는 봄나물에 냉이가 빠질 수 없다. 봄 냉이를 활용한 라면 신메뉴로 집에서 봄나물 라면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오투기는 프리미엄 전동장 브랜드 죽장연과 협업하여 봄 시즌 한정 제품인 '죽장연 빼개장면'을 선보였다. 죽장연 빼개장면은 전통 빼개장과 봄 냉이가 만나 구수하고 향긋한 국물 맛이 특징이다. 신제품에는 청정지역 죽장연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재래식 빼개장이 들어가고, 국산 냉이를 사용해 향긋함을 더했다.

◆중식당에도 찾아온 봄

크리스탈 제이드는 제주도 식자재를 활용한 시즌 한정 메뉴를 출시했다. '탐라성찬'을 콘셉트로, 제주 흑돼지와 제주 팥새우, 제주 모자반과 톳 등 봄의 맛을 깨워줄 청정 식자재를 통해 새 봄의 만찬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메뉴는 신선한 바지락에 제주산 팥새우, 모자반을 넣어 깊고 진한 맛을 살린 '제주 바지락 탕면', 제주산 톳을 전복장과 함께 볶

아내 고소함을 더한 '제주 톳 전복장 볶음밥', '중국 산둥 지방의' 무수려우를 크리스탈 제이드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제주 흑돼지 무수포크' 등 3종이다.

봄동의 아삭한 식감을 살린 중식도 있다. 한화 더테이스터블의 중식 브랜드 3곳(도원스타일, 티원, 백리향스타일)은 봄동을 주재료로 '봄동 대합탕면' '봄동 우육탕면' '봄동 새우탕면' '사천식 봄동 찜빕' 총 4가지 메뉴를 선보였다.

◆달콤한 디저트로 봄 피크닉 기분 가득

메가MGC커피는 따뜻한 봄 햇살의 피크닉 타임을 가진다는 의미를 담아 '후루츠 주스프링'을 선보였다. 상큼한 블렌딩 주스 4종과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디저트 3종으

로 구성됐다. 블렌딩 주스는 과일의 싱그러움에 건강함을 담아냈으며, 디저트 메뉴는 블렌딩 주스와 곁들이기에 제격이다. '미트파이'는 풍미가 가득한 치즈와 바비큐 소스로 맛을 낸 소고기의 조화가 인상적이며, 크로크무시는 고소한 식빵 윗면에 햄과 치즈를 더한 든든함이 매력적이다.

던킨은 부드러운 연유를 활용해 기분 좋은 달콤함을 선사하는 시즌 신제품 3종을 선보였다. '딸기 연유 러블리 하트' '도넛 1종과' 딸기 연유 쿨라타 '연유폼 라떼' 등 음료 2종으로 구성됐다. 딸기 연유 러블리 하트는 딸기 필링과 연유 필링이 어우러져 부드러우면서도 상큼하고 달콤하게 즐길 수 있다. 딸기 연유 쿨라타는 딸기와 연유에 우유, 얼음을 함께 갈아 넣어 부드러움을 한껏 끌어올렸으며, 연유폼 라떼는 달콤한 연유를 넣은 라떼에 부드러운 연유폼을 추가해 한층 달달한 풍미를 연출했다. 한편, 이번 신제품은 도넛 패키지와 겹홀더에 후지야의 인기 캐릭터인 페코, 포코 캐릭터 그려 넣어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더했다는 점 또한 돋보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metroseoul.co.kr

'봄동 대합탕면' /한화 더테이블

명동상권 'K뷰티' 체험 구름인파... 외국인 매출 6배 ↑

영미권, 아시아 등 관광객 증가
봄 시즌 맞물리며 소비심리 폭발

'뷰티 1번지' 명동에도 봄이 찾아왔다. 영미권, 동남아, 일본인 관광객에 이어 중국인 관광객까지 명동을 찾으면서 상권이 활기를 되찾은 것이다.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이 지난 1~17일 명동 내 5개 매장 매출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9배가량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실제로 같은 기간 명동 상권 매장의 외국인 매출 비중은 지난해 12%에서 올해 73%로 여섯 배 가까이 뛰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남아, 일본, 영미권, 중국 순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 기간 억눌렸던 여행객들의 소비 심리가 봄 시즌, '올영세일' 등과 맞물리며 폭발한 것으로 풀이된



지난 12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시스

다. 또 최근 K-콘텐츠를 통해 K뷰티를 접하거나 '올리브영 글로벌몰' 등 역직구를 통해 한국 화장품의 우수성을 경험한 외국인들이 매장을 방문해 K뷰티를 직접 체험하려 한 점도 한 몫했다.

한국 신진 브랜드들의 매출도 급증하고 있다. 이 기간 외국인 인기 상품 톱 10 브랜드 중 9개가 중소·중견기업 화장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미권

고객에게는 '한국의 미'와 특성을 살리거나, 순한 성분을 내세운 브랜드 상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빅모델'을 기용한 대기업 브랜드들이 외국인 고객에게 잘 팔렸지만 최근엔 K뷰티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판도가 바뀌는 추세"라며 "우수한 상품력과 적합한 채널만 있다면 중소기업 제품들도 얼마든지 외국인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장 눈에 띄는 브랜드는 '조선미녀(Beauty of Joseon)'다. 국내 고객에게는 생소한 '조선미녀'는 현재 미국 SNS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다. 지난해 8월 외국인 고객의 수요를 반영해 명동 상권에 입점, 매월 매출이 30%가량 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기간 '조선미녀'의 '맑은 쌀 선크림'은 영미권 고객 인기 상품 1

위, 외국인 전체 인기 상품 6위를 차지했다. 토리든, 라운드랩 등 '클린뷰티' 콘셉트를 표방한 중소 브랜드 역시 이 기간 매출이 전년 대비 20배 이상 급증했다.

마스크팩 일색이던 외국인 고객의 K뷰티 장바구니 풍경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인의 피부에 관심을 갖게 된 동남아 고객은 주름 개선 기능 등을 내세운 '슬로우에이징' 상품을, 얼굴에 바르기 쉽지 않은 바디검용 선크림이 주를 이루는 영미권 지역 고객은 스킨케어와 유사한 제형의 'K-선크림'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중국인 고객은 마스크팩보다 색조화장품을, 일본인 고객은 치아미백제나 헤어 트리트먼트와 같은 다양한 상품군을 도전적으로 체험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신원선 기자



렉라자

/유한양행

유한양행

'렉라자' 1차 치료제 변경 신청

유한양행이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이하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로 렉라자의 적응증을 추가하기 위한 변경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렉라자는 2021년 1월18일 식약처로부터 EGFR T790M 돌연변이 양성 2차 치료제로 허가 받은 제품으로, 지난해 10월 EGFR 활성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로 수행한 다국가 임상 3상 시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무진행 생존기간(PFS) 개선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 아시아 총회(ESMO 아시아)에서 상세한 임상 시험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국내 적응증 확대를 위한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허가 승인시 1차 치료제로 더 많은 환자에게 고품질의 의약품 치료 기회를 더 빨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렉라자는 2018년 11월에 안센 바이오 테크사와 기술수출 및 공동개발 계약이 체결되어 안센의 EGFR-MET 타겟 이중 항체 치료제인 아미반타탐과의 병용요법으로 비소세포폐암의 1차 및 2차 요법 임상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세경 기자

분당 차병원 태아 뇌 줄기세포로 파킨슨병 치료길 열어

김주평·정상섭 교수팀

도파민 세포 이식 통한 치료효과 확인

국내 연구팀이 태아 뇌 줄기세포로 파킨병 치료의 새 길을 열었다.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 신경외과 김주평·정상섭 교수팀과 차 의과학대학교 바이오공학과 문지숙 교수팀은 세계 최초로 태아 중뇌 조직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도파민 신경 전구세포를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해 안전성과 운동 능력 향상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운동 장애(Movement Disorders)' 최신호에 게재됐다.

김 교수팀은 70세 이하 파킨슨병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세포수에 따라 세 그룹에 도파민 신경 전구세포를 양측 대뇌 피각부에 이식했다. 평균 12개월

간 추적관찰한 결과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인 통합 파킨슨병 평가 척도(UPDRS)에서 ▲저용량 그룹(4x106 세포 투여) 11.6% ▲중용량 그룹(12x106 세포 투여) 26% ▲고용량 그룹(4x107 세포 투여) 40%의 운동능력 회복 효과를 확인했다. 출혈, 면역거부, 염증, 중앙형성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세경 기자 seilee@